

2014년 미술계 '한숨과 환호'

2014년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미술계에 그나마 한 가닥 숨통이 트인 한 해였다.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관이 사상 처음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고, 한국의 독창적인 단색화(모노크롬)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미술시장의 경기는 아직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회복되지 못했다. 사건 사고도 많았다.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학예사 채용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고,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은 현직 대통령을 풍자한 걸개그림 전시가 유보되면서 대표가 사퇴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단색화의 재조명

1세대 이우환 작가, 한국인 첫 파리 베르사유궁서 개인전... 작가 6명 美서 작품 소개도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우환의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전 설치작품.

국제갤러리 제공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단색화가 국내외에서 새롭게 조명받았다. 단색화는 1970년대 시작된 한국 고유의 화풍으로, 여러 색채 대신 한 가지 색채나 그와 비슷한 색채로 구성하는 회화 양식이다.

1세대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이 국내외 경매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표 작가는 이우환(사진)이다. 1976년 작 '선'으로부



터'가 지난 11월 열린 미국 소더비경매에서 추정가를 두배 이상 넘어서는 216만 5000달러(약 23억 7000만원)에 팔렸다. 이우환은 지난 6월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블룸앤드포 갤러리에서 열린 '다방면에서 : 단색

화와 추상'전에는 권영우, 박서보, 윤형근, 이우환, 정상화, 하종현 등 단색화 대표 작가 6인의 작품 40여점이 소개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도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소개하는 '텅 빈 충만-한국 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전을 기획해 해외 23개국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순회전을 열고 있다.